



평화·스포츠·문화 융합한 국제도시 광주 자리매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힘 모으자 (1)프롤로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오는 7~8월 광주와 여수 등지에서 펼쳐진다. 세계수영대회는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올해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여서 성공개회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수영대회 성공개회를 통해 국제도시 광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분야별 추진 현황을 차례로 연재한다.



대회 개요

광주세계수영대회는 동·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로 불린다. 7월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주와 여수 일원에서 열린다. 200여개국 선수와 임원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 76개 경기에서 186개 금메달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 대회는 2015 러시아 카잔 대회 이후 국가대표 대항전인 선수권대회와 전 세계 동호인들의 수영축제인 마스터즈대회가 동시에 열려 세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대한민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대 국제대회를 모두 치르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7월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7000여 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겨룰 것으로 보인다.

8월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마스터즈대회'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8,000여 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광주를 찾는다.

기대효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광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춘 도시로 격상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추구하는 광주 콘텐츠를 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수영대회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김치 축제, 청년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광주의 문화콘텐츠도 널리 홍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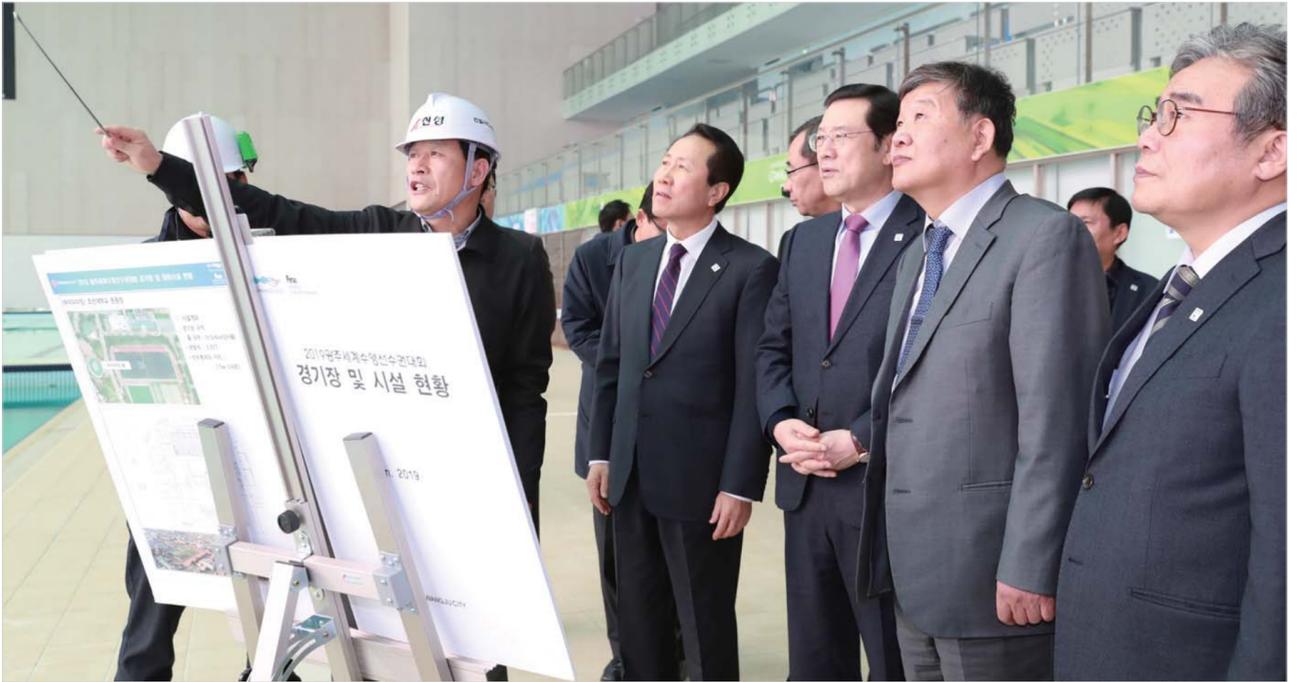
각종 미디어 노출로 인한 방송 홍보 가치도 커 대회를 통해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광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지역의 주력사업인 자동차·친환경 차·가전·신재생에너지·광산업 등이 획기적인 발전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도 커 향후 국제관광 도시 광주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위원회는 생산유발 효과 2조4,000억원·고용창출 2만4,000여명 등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에는 177개국 선수 2,303명, 임원 1,912명, 수영대회 연맹 관계자 1,279명, 1,611개 미디어와 방송 등이 참여했다. 마스터즈대회 등록자 수도 1만2,000명에 달했고 대회 기간 48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대회를 중계했고, TV 누적시청자만 5억1,000만 명에 이른다.

단일종목 스포츠 대회로서는 최대규모 행사인 수영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거둬들이는 경제효과는 막대하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추산한 대회 개최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전국 2조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전국 1조원 광주 6,500억



노태강 문체부2차관이 지난 1월 광주를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영택 세계수영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등과 함께 남부대 주경기장 등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생산유발 2조4천억·고용창출 2만4천명 달해 북한선수단 참가 청신호 등 대회성공 기대감 경기장·선수촌 등 공사 6월 완공 목표 '순항'

있다. 특히 대회 흥행요소인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가 관심사다. 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에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분위기는 낙관적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놓고 봤을 때 북한 참가가 낙관적이라는 게 조직위 판단이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FINA 사무총장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주시도 공식적으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북한 참가를 요청해 둔 상태다.

북한 참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에서 알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평화, 문화를 접목한 대회로 만들기 위해 시와 조직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기 시설

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선수들이 사용할 경기장과 선수촌 공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 수영 경기 시설은 6월 중 모두 준공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치러지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기존 관람석 3,393석을 1만648석으로 늘려 두 배 이상 관람시설을 확충했다.

수구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남부대 축구장은 임시수조 2개, 관람석 4,340석을 설치했다. 장거리 수영 경기가 열릴 오픈워터 수영장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 2,075석 규모의 관람석과 포톤(출발대)을 설치해 이번달 착공한다.

아티스틱수영 경기장인 영주종합체육관은 임시수조를 설치하고, 관람석과 내부 운영실을 개보수 중이다. 공정률은 54%이며,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조선대 축구장에서 27m 높이의 다이빙타워·임시수조·관람석을 설치하게 된다.

시는 경기시설물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부터 일일 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설운영전담팀을 꾸려 대회시설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모든 경기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6월 초 대회시설을 이용한 테스트 이벤트를 준비해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선수촌·숙박

선수촌은 7월 2일 언론에 공개, 7월 5일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선수촌은 25개동 1,66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선수·임원에 14개동 1,050세대, 미디어진에 10개동 570세

대, 운영실 1개동 40세대를 마련했다. 대회가 끝난 후 마스터즈대회에 참가한 수영 동호인들도 선수촌을 사용할 수 있다. 마스터즈 참가자들을 위한 선수촌은 1,620세대에 6,000여명이 머무를 수 있다.

선수촌은 6월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63일간 운영되며 은행, 편의점, 세탁소,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과 탁구장, 당구장 등 위락시설도 들어선다.

선수과 임원, 취재진을 제외한 FINA 주요 인사와 대회운영인력 등은 따로 숙박시설이 준비된다. 우선 FINA 주요 인사와 국제기술 임원, 조직위 초청인사 등 680여명은 광주 4곳, 나주 1곳, 여수 1곳 등 광주시가 지정한 분부호텔에 나눠서 머물게 된다.

또 국내심판 등 경기진행요원과 도핑관리 인력, 개·폐회식 공연인력 등 대회 운영인력 2,200여명은 16곳의 관광·비즈니스호텔과 대학기숙사 6곳 등 22곳에 나눠서 머문다.

가족이나 클럽 동호인들과 광주를 찾을 마스터즈 선수는 대회 등록과 함께 선수권대회 이후 선수촌에 머물 수 있으며 일반호텔 400여실과 대학기숙사 1,100여실에 가족, 동호인 등과 함께 머물 수 있다. 또 나머지 관광객들도 광주·전남에 300여세대의 흡스테이 가정과 19곳의 템플 스테이, 기타 게스트하우스를 준비 중이다.

조영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행사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스포츠와 평화, 문화를 융합한 전 세계 축제로 만들겠다"며 "대회 슬로건이 평화인 만큼, 스포츠를 통해 화해와 협력,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회로 만들어 수영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겠다"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치러지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아티스틱수영 경기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영주종합체육관.